

전 조직원의 전문화 추진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전문 수도경영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오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김홍선 본부장을 만났다. 김 본부장은 시간 내내 진지한 자세로 우리나라 상수도현실을 짚어가며 깊은 고민을 나눠 주었다. 함께 나는 상수도의 전반적인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이르기까지 모범적인 수도인의 모델로 외길을 걸어온 그의 고견을 실는다.

36년간 수도인으로서 한 길을 걸어 온 김직함과 전문성으로 본부장으로 발탁된 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분야의 전문가이자 기술사인 김 본부장의 취임에 대해 주위의 기대감이 큼니다. 대전광역시의 상수도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 터인데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상수도 전문기술 행정인으로서 어떻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경영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평생을 오직 수도인으로 살아 온 세계는 더 없는 영광이자 그간 닦아 온 수도전문인으로서 나름의 노후를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빌어 상수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상수도 3대 요소인 수입, 수질, 수량을 충족하는 것이고 둘째가 경영이라고 봅니다. 이 3대 요소의 기술적인 부분을 잘 경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수도의 개념이 아닌가 봅니다.

본부가 생기면서부터 경영의 전문가가 왔으나 그는 수도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전문가를 양성해 내는 기초적인 토양이 마

련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제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의 9대 본부장인데 대전광역시에 상수도 생긴 것이 지난 90년도였다면 거의 일년에 한번 씩도 본부장이 바뀌었다는 말인데 이렇다 보니 누구도 전문가가 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본부장이라는 것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걸러져야 하는 것인데 항상 상수도 본부장은 새로 나타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습니다. 결국 상수도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나가니, 소모적인 현상이 반복되는 현실이니 그러한 관행이 대전광역시만 해도 벌써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셈이죠.

또한 도목이 30%, 기계·전기 30%, 수질 30%, 경영 10인 수도현장에서 언제나 경영 10%가 나머지를 90%를 움직여 오다 보니 실질적인 수도의 전문 분야에 대해 접근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곧 시민들의 불신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전문기술을 경영의 프로세스에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대전광역시 업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커다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상수도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경 본부장이 대구도 가고 대구 본부장이 대전도 오고 하는 식으로 전문가를 키워내는 리듬을 갖는 풍토가 생겨나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서로의 왔다갔다하면서 총괄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수도를 모두 파악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장이자 오랫동안 상수도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해 오신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 혹은 업무에 관해 원칙이나 철학으로 삼는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부임과 함께 안정적인 물 공급이라는 기본방향과 함께 상수도 3대 요소의 충족, 시설 안전관리, 공기업을 효율적 기능, 선진화된 서비스 실현이라는 경영방침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단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며 고객 감동을 전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원들의 대민서비스란 곧 조직원 전체의 전문화, 즉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족이라면 정문을 지키는 청원경찰부터 시작해서 전 조직원이 전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내에는 전기직과 토목직, 기계직 등 17개 직종으로 서로 업무가 다른 분야가 있지만 또 큰 틀에서 보자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뤄져고 있습니다. 내 분야가 아닐 뿐 어느 수준까지는 서로의 일들을 알고 있어야 하나의 시스템이 움직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현재는 서울시 수도본부 산하에만 연수원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수도본부산하에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 연수원이 있어서 수도공무원으로 첫발을 딛는 이들에게 전문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화에 대한 저의 고민은 참으로 큼니다. 이렇듯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제 막 놓고 있을 수는 없니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취임 이후로는 수도전문화요원 양성을 위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으

로 전문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직에게도 토목직 문제를 출제해서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수도인이란 기본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해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전체적인 전문화 수준을 올려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1년이면 2천 문제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방침에 대해 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여 수도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데로 보내겠다고까지 엄포를 놓았으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담에 이것까지...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스스로 전문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결국 시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백여 명의 직원 중에서 BOD를 아는 사람은 화공직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도대체 누구를 수도공무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직도 전기직도 그러한 기본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주 불친철을 이야기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자주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이 부서 저 부서 연결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가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전 직원이 어느 정도 전문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도공무원 생활 35년 중에 도로에서 보낸 2년을 빼고 평생 수도 일을 해왔지만 첫 발을 디딜 때부터 대전광역시민의 수돗물은 내가 책임진다는 사명감만은 변함없이 가져왔습니다. 본부장이기 이전에 수도인으로서 갖는 사명감과 책임감이었



무엇보다 이러한 예민한 일들은 서둘러 매듭짓는다는 인상보다는 긴 안목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와 설득 의사소통이 있어야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인 수도를 사랑하며 살아 온 지금까지의 철학인 것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얼마 안량의 수도물을 생산하고 공급이 가능하신지 밑줄쳐 주십시오. 만약 지속적인 물 수요의 증가로 추가적인 정수장 건설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예측과 검토를 하시며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요?

우리나라 상수도 역사 100년 중 대전광역시는 70년이 되었습니다. 5·16전에만 해도 23500톤 정도였는데 현재는 105만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최대 용량이 65만톤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시설용량의 개념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너무 경제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소위 안전을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일본의 경우 25%의 안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100만톤 정도 같으면 75만톤을 생산해내라는 개념입니다. 그 유니트별로 확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비력이라는 개념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전율을 보지 않고 100만톤을 생산하면 100만톤을 모두 빼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듯 시설관리의 측면에서 너무나 소모적이다 보니 시설 자체가 20년을 넘지 못하는 결과가 생

겼습니다. 때문에 대전광역시는 현재로는 105만톤 생산량이 충족되지만 안전율을 감안해서 약 60만톤 정도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정해진 여과속도를 분명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의 취약점이 단일 수계이기 때문에 단일 수계 문제가 생기면 시내 전체 수도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급수원을 개발해 30만톤을 준비해 둘 시설을 2005년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고요. 이후 또다시 인구 증가 등으로 더 필요하다면 30만톤을 추가 증설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수장의 추가적인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혹 있을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마찰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대전은 청년도시입니다. 활발하게 쫓는 도시로, 수도권의 배후도시로 수도권의 기능을 필연적으로 분담할 수밖에 없는 도시임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늘어갈 물 수요량에 대한 대비를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원정정수장의 경우도 대전 중앙공원이었던 곳에 정수장을 만든 곳입니다. 처음엔 왜 공원을 파헤치냐는 거센 반대로 있었지만 수도가 갈 곳은 산밖에는 더 없다는 생각에 동의할 일어났습니다. 결국 공원이나 그린벨트지역을 해체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지요. 저는 이것은 환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민들의 젓줄인 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새로 건설하게 될 정수장을 위한 60만평 부지까지 미리 다 마련해 놓았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전 지역민들과 충분히 갈등 없이 협의를 얻어냈습니다.

이런 일들의 경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예민한 일들은 서둘러 매듭짓는다는 인상보다는 긴 안목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와 설득 의사소통이 있어야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면관의 협력 덕분에 대전광역시에는 세 굵대의 정수장이 있는데 모두 자연유하식의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단히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부나 상수도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안정성을 강조해도 여전히 수돗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두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수도사업을 하는 모든 지자체가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또한 상하수도 부문의 대표기관인 협회에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홍보활동을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지금의 수돗물이 수질이 나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그간 수돗물이 나쁜 물로 인식되는 데 가장 공헌을 한 강본인은 환경단체 사람들, 대학교수 전문가들, 다음으로 언론, 정수기장사 먹는 샘물 장사들의 맛장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물을 먹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수돗물이 좋더라도 본인이 안 먹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각각 원하는 물을 마시고 있지만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수돗물 역사 100년 중에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돗물이 아닌 다른 물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돗물은 믿지 않고 다른 물만을 추구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돗물의 수질이 뛰어나다는 정확한 통계를 보여 주지만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기관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불신의 배후에 놓인, 여전히 변하지 않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우리 직원을 붙잡고 물어도 COD가 뭔지 모른다는 사실, 결국 우리 수도집단 자체가 전

문화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현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낳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결국은 수도사업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물관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우리 자신도 확신이 없는데 어떤 시민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 수돗물 정말 맛있고, 안전하다고 아무리 외쳐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 근무자들부터 우리 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에서 스스로 우리나라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수도협회도 스스로 전문인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협회에서 좀 더 활발하셔서 각 지자체가 스스로 홍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일을 알아서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드릴 것은 절수의 개념이 아닌 지혜롭게 물을 지혜롭게 쓰되 낭비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은 상수도 사업자들의 당연과제이며, 물 절약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와 책임은 물값의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올해 세계 물의 해를 맞아 더욱 자주 우리나라의 물 부족 얘기가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니



다. 저는 UN에 의해 정의된 물 부족국가라는 사실을 좀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의를 제기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물 관련 기술자나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UN에서 그들의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정의가 95년 정도에 내려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때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물 사용 패턴이 아주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봅니다.

상수도만 가지고 따지면 물을 쓰는 소스를 가정용과 공업용, 농업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의 누수율도 상당히 큰 데다 각 가정의 음식문화의 패턴도 상당히 바뀌어서 물을 적게 쓰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이제 1차 산업은 모두 불경기로 쇠퇴산업이고, 공업용수 또한 각종 첨단 기술의 개발로 갈수록 물이 많이 드는 분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95년을 기준해서 상수도 쪽의 물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물이 얼마가 모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다시 검토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또, 물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물값의 현실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우리나라는 여러 조건이 물을 만드는 데 비용이 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금강강산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흔한 게 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물을 처리하다 보니 적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처리해서가 아니라 잘 그대로 좋은 여권의 물을 가졌다는 현실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물값이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수도물을 공급하는 공기업인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알맞는 적정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가지처럼 막연하게 우리 수도물은 싸기 때문에 물값을 올려야 한다는 계산방법의 적용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정부에서 물값을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큰 도시로 갈수록 물값이 싸고 시골로

갈수록 비싸다는 물값의 불합리한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동강, 금강수계별로 통일을 한다든가 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정리가 되어서 국가가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끌고 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수도는 수도물만 잘 나오면 되고 하수도는 물만 잘 빠지면 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 진지한 접근으로 고민할 때입니다.

현재 협회 부회장이신 대전광역시장님을 대신하여 협회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특히 상수도 분야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현재 175개 지자체 회원은 물론 기업 및 학계에서 바라는 다양한 요구 및 개선 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의 정책위원장으로 어떤 식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동시에, 현실감과 달는 정책으로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실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과위원회도 모으면 각자의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학계는 학계대로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자들이 끌고 나가야 하는데 수도사업자에 대한 전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쪽의 힘에 밀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각각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번에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야 또한 협회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하수도에 대해 간섭하는 기관이 너무 많은 편입니다. 중앙의 행자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등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는 노후관 교체하는데 많은 예산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행자부에서는 예산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그때 자문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협회에 바라고 싶은 점은 홍보를 집약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협회가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려면 먼저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협회가 조직원에게 믿음을 줘야 하고 그 믿음이 곧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득이라는 작업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조직원에 대한 부단한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현재 협회 내에서는 수질에 대한 교육에 주로 집중되는 편인데 다양한 층이 알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의 부분이 양질의 다양성 속에서 여러 층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간 중책을 맡아 오면서 가장 즐겁고 보람 있었던 일과 안타깝고 어려웠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게는 물이 삶의 모든 공간이 되어 왔고 또 일기가 그리 길게 남지 않은 지금 그동안 배우고 쌓아온 지식들을 모두에게 쏟아 놓고 가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시도하는데 있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나의 열의를 모르고 그것을 부담스러워 할 때가 많아 안타깝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좀 파라와 권으면 하는데 나의 마음을 잘 몰라 줄 때 힘이 들더군요.

그것은 수도전문인으로서 21세기를 살아 나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저의 방식인데 맞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리저리한 경로를 통해 저를 먼저 알아보고 잘 좀 해달라는 건심 이런 부탁들을 해옵니다. 상대가 누가 되었든 그때마다 힘이 솟고 보람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 원로 수도인들을 초청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9급으로 첫발을 디딜 때 국장급이신 분들도 오셨고, 퇴직한 지 30년 만에 오신 분들도 이 분야의 원로 전문가분들께서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더군요. 저는 그럴 때 수도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직원들에게는 철저한 수도인이 되라고 재근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이번 5월 1일부터 저희 본부 전 구역을 급연구역으로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주방장이 담배 관 손으로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여지와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전직원들이 3대 청결운동을 펼쳐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 물, 물 만드는 사람의 생각 즉 마인드가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커멓게 찍은 정수장 속직실을 본다면 누가 깨끗한 수돗물을 만든다는 말을 믿어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깨끗하한 몸과 맘으로 만든 물이어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거죠. 지금은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가 아닌 우리 시민들의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전이란 변화를 바라는 우리들의 바람 속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선 본부장과의 면담은 이것으로 끝을 맺었다. 여운을 달래가며 차 한 잔을 더 마시던 중에 일본에서의 여담을 하나 덧붙였다.

'오사카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식수로 수돗물을 그대로 주길래 식당 주인에게 일본에서 오사카 물이 가장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마시느냐고 물었다. 식당 주인은 단번에 그것은 틀린 말이다. 우리 시의 수도국장이 오사카 물이 최고라고 했으니 안심하고 먹으라고 했다'는 얘기였다.

김 본부장이 기대하는 세상은 수돗물을 사이에 두고 수도인과 시민들이 충분한 믿음을 나누어 마시는 세상일 거라는 짐작을 갖게 하였다. 어찌 보면 그는 평생 최선을 다해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고 있으니 안심하고 즐겁게 마시라고 권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도 했다. 다만 아직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인터뷰 내내 반드시 그 믿음의 물꼬를 트겠다는 희망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하고 있었던 것만 같다. 

상하수도

